

蘆溪歌辭의 現實認識

——陋巷詞를 中心하여 ——

金 基 頂

<目 次>

- | | |
|----------------|-----------------|
| 一. 머리말 | 2. 廉巷의 代農夫吟 |
| 二. 16C의 時代·社會相 | 四. 廉巷詞와 載道的 文學觀 |
| 三. 廉巷詞의 現實認識 | 五. 맷는말 |
| I. 清貧儒者의 道德觀 | |

一. 머리말

文學作品은 그 작가의 意識의 表現이며 體驗의 반영이다. 의식이나 체험은 삶의 구체적 작용으로서 한 時代의 現實과 作家와의 관계에서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작가가 누리는 삶의 現實이 문학작품에 미치는 영향은至大한 것으로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古代詩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현실도피적인 作品도 어디까지나 현실을 떠난 도피적 文學作品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소위 李朝時代 때 관직에서 물러난 山林處士들의 손에서 나온 文學作品도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끊임없는 추구에서 얻어 진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한 作家의 一連의 文學作品 가운데서 心理的 갈등과 體驗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는 곧 社會的인 現實과 意識의 충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作家가 某한 時代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전지하게 다루어 나감으로써 文學作品의 가치는 날로 새롭고 영원한 것으로 그 비중은 무거워 지는 것이다.

한편 文學作品은 작가의 생존 당시에 얼마만큼 現實認識의 바탕 위에서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文學作品이란 작가 자신의 生의 意의를 定立시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현실인식

과 함께 역사의식이 高揚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독자에게까지 정당하게 이해될 것이다.

本稿에서 다룬 蘆溪(1561~1641)는 松江과 妙原에 지금까지 높이 평가되어 온 李朝時代의 文人이다. 그는 李朝 後期 歌辭作家¹⁾로서 그 동안 몇몇 학자에 의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²⁾ 여기 研究의 대상으로 삼는 歌辭 「陋巷詞」는 朴蘆溪의 作品으로 壬亂 이후 現實生活에서 素材를 취하여 生活에 밀착된 참다운 文學性格을 보여주고 있어 그 가치는 前期 歌辭에 비해 높이 평가되고 있다.³⁾ 그러나 <누항사>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이 가사가 어떻게 해서 쓰여 졌는 것인가 하는 물음 못지 않게 중요시되고 있다. 詩와 함께 가사작품 또한 감상하고 즐기는 독자에게나 作品을 창작하는 작자에게까지도 정당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16C라는 시대성과 함께 현실인식을 通해 살펴 보고자 한다.

二. 16C의 時代·社會相

蘆溪는 永陽(永川)人으로 字를 德翁 號를 蘆溪라 하고 一平生 尊賢樂道에 정성을 다한 그는 明宗 16年(1561)에 나서 仁祖 20年(1642)까지 산 사람이다. 38 歲 때 壬辰亂이 일어나자 慷慨하여 憤然히 뜻을 던지고 戎馬間에 출입하면서 別侍衛로 있다가 左節度使 成允文의 幕下에 들어가 많은 功을 세웠다. 또 그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학문하기 위해 晦齊 李彥述의 遺蹟을 찾고 寒岡 鄭述을 拜謁하여, 芝山 曹好益, 旅軒 張顯光을 찾아 가르침을 請하면서 詩文을 創作하고 權勢와 利益을 즐겨하지 않아 李漢陰 相國은 國士로까지 대우하였다. 먼저 그의一生을 둘로 나

1) 趙潤齊: 國文學概說(東國文化社 刊, 1960) p.140.

2) 蘆溪詩歌의 研究로는 李相寶: 蘆溪詩歌研究(二友出版社, 서울, 1978) 朴晟義: 「松江·蘆溪·孤山의 詩歌文學」(玄岩社, 서울, 1966) 崔雄 韓國 古典詩論으로 본 蘆溪詩歌(冠嶽語文研究 vol. 2, 서울大, 1977) 朴箕錫: 蘆溪詩歌研究學說(국어 교육 vol. 36, 한국국어 교육연구회, 1980).

3) 鄭炳昱 교수는 「陋巷詞」作品에 對하여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조선 전기의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투적인 기법과는 달리 훨씬 현실성을 띠고 있음을 본다」고 하여 후기 가사의 특징 속으로 접근시키고 있다. 「한국 고전시가론」<서울, 신구 문화사, 1977> p.205.

눌 때 前 半生은 趕赴武夫의 生涯를, 後 半生은 讀書修行의 儒者로서 그가 남긴 歌辭作品을 이해하기 為해서는 그 作品이 産出된 時代와 社會的 바탕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巨視的으로 볼 때 李朝는 儒教理念을 바탕으로 한 國家였지만 壬辰倭亂 (1592—1958)으로 因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런데 이미 임란 전의 李朝社會는 오랜 평화 속에서 支配階層인 兩班의 偏黨, 政治紀綱의 해이, 田稅制의 문란 등의 여러 쇄 단으로 人心이 동요되고 있었다. 조정의 위신이나 존엄성이 表面相으로는 엄격히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실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中央政府는 末端行政이나 民衆과는 이미 유리상태에서 奪權의 침입을 당하였다. 아울러 壬辰倭亂後 불과 半世紀도 못되어 또 다시 北으로부터 언제나 未開下等視하던 女眞族의 통일 결과로 침입을 당하여 丁卯·丙子胡亂을 초래케 하였다. 이와 같이 16C 末期와 17C 初는 倭亂과 胡亂으로 15C的인 체제의 解弛에 그치지 않고 분명히 하나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양반계급의 각성과 함께 庸民階級의 대두는 文學에 있어서 平民的 경향과 平民에 依한 文學創作 활동을 촉진하게 되었다.⁴⁾

16C에 있어서의 정치면의 변화는 무엇 보다도 士大夫 지배계층의 분열과 대립으로 집권세력과 재야세력으로 区分되어 압력이 심하였다. 다시 말해서 熏舊派와 士林派의 세력 다툼으로 戊午, 甲子己卯土禍가 연속적으로 일어나 나중에는 당쟁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兩亂을 겪어 더욱 심화되었다.

노계의 生存前 中宗부터 宣祖 사이의 政治的 事情은 대단히 복잡하였다. 그것은 사화와 당쟁의 발생으로 각파별(熏舊派, 士林派, 節義派, 清談派)의 대립 속에서 士林派가 선조조에 접어 들면서 중앙정체를 지배하기까지 철저한 정치적 속청이 반복되었고, 끝내는 당파적 분열을 일으켜 당쟁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6C는 15C에 확립된 朝鮮王朝의支配秩序가 무너지고 17C 이후의 王朝 後期의 정치적 체제가 움직여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유교의 이상정치 實現을 目標로 삼고 있는 趙光祖 등의 유교적 至治主義의 이상이 좌절되고 性理學의 현실적 정치적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적, 관념론적 理氣論 中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16C의 정치, 사상면에 있어서 성리학의 지나친 觀念論化로 禮學의 발달은 尊華

4) 趙潤濟: 한국시가사장, (서울, 을유문화사, 1951) p.297.

攘夷思想의 강화, 綱常의 계급윤리 極大化, 大義名分 中心의 가치론 강조 등을 가져와서 사회체제를 硬化시키고 歷史 발전의 역행하는 결과를 빚었다.⁵⁾ 또한 이 시기의 경제적 측면의 변화로는 科田法의 붕괴와 폐지를 들 수 있다. 科田法 시행 당초부터 지나치게 관료층의 이익을 보장하였기에 농민층은 土地支給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질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지만, 시행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력 약화로 과전법 자체가 변하여 끝내는 폐지되었다.

당파와 당쟁을 일삼는 관료 집권층의 경제적 뒷받침은 지방에 있는農莊이었다. 士林派들의 生活 기반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地方에 있는農莊에 있었기에 과전법 폐지 결과 貴族官僚層에 의한 土地兼併은 더욱 확대되어 갔고, 이같은 현상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층 더 발전되어 大土地 所有制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임진왜란과 함께 16C 이후는 凶年 등으로 農土에서 流離된 人口가 많아지고 따라서 농촌인구가 도회지로 집결됨에 따라 상업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조 王朝社會의 양반 관료들도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즉 士禍와 黨爭으로 因하여 분열을 가져오고 임란과 호란으로 더욱 경제적 파탄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宣祖時代에 이미 東西分黨이 생기고 당쟁이 심하여 보복이 심화될 때 임진왜란이란 兵亂을 맞이 했다. 倭軍은 파죽지세로 밀어 닦쳐서 서울을 손쉽게 적에게 넘겨 주게 되었다. 이때 全國 도처에서 黨色에 관계 없이 義兵을 일으키어 다행히 전국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戰局의 담당은 主로 柳成龍, 李元翼, 李恒福, 李德馨, 鄭昆壽 등의 五大臣의 주도하에 무사히 이루어져 왜군을 물아내게 하였다.⁶⁾ 의령장은 거의 모두가 양반층에서도 무반 아닌 문반 출신이며, 지방의 魏林 名族들이어서 이들은 임란 당시에 守令 武將의 무능 비겁과 官軍의 폐산에 격분 축발되어 의병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祖上 때부터 落鄉하여 草野에 묻혀 있던 朴蘆溪 역시 没落한 양반의 자손으로서⁷⁾ 東西分黨이 심화되는 와중에서는 뜻한 바를 꿨을 수 없었다. 선조 25年(1592)倭寇들이 우리 나라를 침입해 오자 敢然히 일어나 의병에 가담하고 別侍衛가 되어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朴仁老도 일찍부터 지방의

5) 姜萬吉: 16C 양반사회, 모순과 남외항쟁,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서울 탐구당, 1978) pp.8-9.

6) 姜周鎮: 兩班官僚의 分裂,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서울 탐구당 1978) p.243.

7) 「蘆溪集」李朝名賢集 3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3) 卷一의 世系圖와 그의 行狀 墓碣銘을 비루어 볼 때, 일찍부터 落鄉하여 농사짓는 兩班이다.

儒林名族들과 함께 師門傳教의 道義의 교훈을 실천하려고 하였으나, 왜구의 침입으로 동족과 향토 방위와 결부되어 의병에 가담되었다. 그래서 日本에 대한 민족감정과 직결되어 武夫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心情이 그의 작품 <太平詞>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李朝時代의 양반관료들의 행적을 들 때 정치인, 학자, 문학가가 아닌 사람이 드물고, 또한 그들의 생활이 출사유배, 은둔의 과정을 거치는 경험을 모두 다 갖는 것이⁸⁾ 常例에 속한다고 볼 때, 文人 蘆溪의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속성과는 출발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는 國難을 당하여 잠시 학문을 멀리하고 한낱 武夫로서 東奔西走하다가 전쟁터에서 <太平詞>를 지었다. 나아가 선조 32년에는 정식으로 武科에 及第하여 守門將, 宣傳官, 거제도의 末端인 助羅浦에서 末端 軍官이며 현령(縣令)보다 지위가 낮은 萬戶벼슬로서⁹⁾ 그곳의 밤비를 맡았던 것이다. 자리하고 처참하면 임진왜란은 7년만에 끝이 났지만, 朝野上下를 막론하고 질병과 생활의 困窮은 極에 達하여 도시, 농촌의 황폐화는¹⁰⁾ 말할 것도 없었다. 특히 노계가 萬戶로 있었던 助羅浦는 경상남도 통영군으로 위치하여 倭軍 침입시出入의 門戶요, 또一時 그들의屯聚地였던 만큼 다른 곳 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었기에¹¹⁾ 蘆溪는 그곳 백성들과 더불어 심한 고생을 하였다. 孤島 助羅浦에서 근무하는 士卒들이 쇄진하고 民生이 塗炭에 빠져 견디어 낼 수 없을 때 그가 부임하여 전심으로 撫民하고 勞心焦思하여 善政을 베풀다가 所任을 마치고 돌아 갈 즈음에는 그곳 백성들로부터 治德의 칭송을 받았고 송덕비를 건립하여 善德을 記念하였다. 이로 볼 때 그는 政治에도 청렴결백하였고 孤高한 氣風으로 善治하였지만, 끝끝내 출서를 바라지 않고 倭亂이 平定되자 고향에 되돌아 와 儒者로서의 학문적 소양을 기르고 자연과 벗하며 農事를 짓게 된 것 같다.

8) 鄭炳昱: 한국 고전의 재인식(서울 홍성사 1979) p.125.

9) 「蘆溪集」卷三 行狀(앞의 冊), p.527.

※ 「萬戶」란 벼슬은 水軍 최하위의 단위부대 지휘관이다. 水軍制度는 각 도에 一水營이 있으나 왜구에 대비하여 특히 남해안인 경상도와 전라도에 左·右道로 나누여 二水營을 두었다. 水營에는 사령관인 水軍節度使(水使)가 있었고, 그 아래의 여러 陳이는 水軍節度使와 그 밑에 萬戶가 있었다. (한국사 12, p.303 인용)

10) 임진왜란 중 수년간에 걸친 기근과 질병의 유행으로 집단적 약탈이 심하였고, 짐지어 의병중에는 群盜로 변하고, 군량의 결핍이 심하여 逃軍이 속출하기에 선조 26년에는 起兵 3個月後에 34千여명의 500여명만이 남기고 모두 歸農조치 하였다고 한다. (한국사 12, p.301-30 참고)

11) 李丙叡, 國史大綱, p.426.

그가 지은 <無何翁傳>에 보면

「서투르게 무술에만 힘쓰고, 詩書를 읽지 못하였으며, 10年을 빙궁한 집안에서 헛된 노력만 하였다고 한탄하였더니, 다행으로 오늘밤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비록 고생스럽고 나이 늙었으나 이 말씀을 (古聖人의 말: 필자註) 받들어 따르고자 하나이다……」¹²⁾

위의 인용은 이미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 武夫의 生活을 청산하며, 며슬(출세)에 대한 미련도 없이 孔門의 學을 닦아 實踐君子로서 계을리 하지 않겠다고 自省하는 면이 엿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크게 지목되는 것은 兩亂 이후 兩班體制와 농민층의 신분 變化를 가져오는 社會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종전의 農民 신분이었던 자가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兩班身分으로 상승하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朝鮮社會를 일명 兩班社會라 칭하여 王을 정점으로 文·武班에 依하여 통치되어 왔었다. 그러나 壬辰倭亂 以後의 軍功論賞·納粟·空名帖의 남발 및 兵制의 개편, 당쟁의 격화, 族譜의 중시에서 온 협잡, 一黨專制下에서의 부조리 등등에 의해서, 奴婢가 良民으로 良民에서 兩班으로 승격 향상되는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다.¹³⁾ 물론 兩班이라고 해서 朝鮮 前期부터 거래를 누려 온 門閥과 朝鮮 後期에 들어서 양반층에 오른 氏族과는 政治的으로나 社會的으로 차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분상의 現象의 변화를 일으켜 점차 闕閨政治가 형성되고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어난 이러한 사회 정책은 결국 軍功을 세운 자에게 한층 신분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타개하는 데 공헌을 할 수 있었고, 또

「軍興之後 几有軍功 更無他物以賞之 皆以官爵授之」¹⁴⁾

라 한 바와 같이 관작을 주지 않고서는 軍功에 對한 대가를 치룰 만한 것이 없었다. 國家財政의 고갈로 군량미 조달이 어려운 형편에 鐵錢으로 지불할 수도 없었다. 결국 임란중 軍功論賞에 관한 기록을 보면

12) 「粗習弓馬不事詩書十載窮廬徒功已矣之歎何幸今夕獲承盛教今雖苦晚請事斯語矣」
(蘆溪集 卷一 無何翁傳).

13) 黃元九 양반사회의 변화, 한국사 13.

14) 宣祖實錄 卷 43(선조 26년 10月條).

「是時 斬馘納粟及 有微細功者 皆賞以告身免賤免役等帖」¹⁵⁾

여라 하여 적을 斬馘하거나 작은 功을 세운 자에게도 告身帖·免賤, 免役帖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선조 27년 軍功廳에서 啓한 내용에

「하종신분인 公·私賤도 적 1級을 斬하면 免賤, 2及을 斬하면 羽林衛, 3及을 斬하면 許通, 4及을 斬하면 守門將에 폐수하는 것은 이미 規制로 뵈어 있다…」¹⁶⁾

고 말하고

「이미 許通이 되고 관직을 받았으면 土族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¹⁷⁾

라고 하였다. 이때는 비록 公·私賤 뿐만 아니라 才人, 白丁, 匠人, 山尺 등 비천한 신분도 높은 관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軍功 授職 등의 方法으로 양반층으로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의 난액상과 패단을 넓게 하였다.

壬辰倭亂을 계기로 조선 개국 초부터 엄격하게 지켜 오던 科學制의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武科에 있어서 더 심각하였다. 王亂中에 난국타개의 救急策으로 初試 入格者에게 式刑 1及이라도 斬하는 者는 우선적으로 許科시키고, 적을 다수 斬首하는 者는 駐元으로 승格시켰으며, 初試에 入格하지 않은 者라도 軍功을 세우면 신분을 초월해서 品職을 주었다.¹⁸⁾ 그 결과 양반 士類層에게는 치명적으로 그 권위가 실추되고 나아가 양반 신분체제에 면질이 불가피하였다. 심지어 公私賤武科가 있었는데 一榜에 수천 명씩 합격되어 모두 응분의 직책을 가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수가 수만에 이르러 科名마저 천시 당하게 되니¹⁹⁾ 양반의 지위가 떨어지면서 신분의 간격은 그 만큼 좁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기존 양반 중에는 정치적 탈락으로 양반세력권에서 절차 멀어지는 자도 끊임 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인 당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科場이 난잡해지고 부정한 方法으로 특정 가문

15) 宣祖實錄 卷 32(선조 25년 11月條).

16) 宣祖實錄 卷 51(선조 27년 5月條).

17) 위의 책.

18) 李章熙, 양반, 농민층의 변화, 한국사 13, p.13.

19) 李時光, 芝峯類說 卷 4, 科目條.

의 자체가 급제되니 대다수 일반 양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儒學工夫나 관직을 등지고 다른 方法으로 (主로 農業) 생계를 유지하게 되니 종국에 가서는 일반 양반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야 말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마련했던 양반들도 無職 狀態가 오래 되면 土族에서 鄉班(낙향한 지방 풀락 양반)으로 그 지위가 전락되어²⁰⁾ 일하지 않고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평민과 다를 없는 雾落 양반(殘班)으로 평민과 천민 계층보다 우월해야 되나는 법도 없었다. 심지어 양반의 신분이란 자가 良人의 아래에서 일꾼이 되어 履實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있었다 한다.²¹⁾

지금까지 上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무과 출신이 크게 출세할 수 없었고, 아울러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蘆溪가 임란 직후에 武科 급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큰 영광일 수 없었다. 그것이 곧 科舉라 하면 사실 文官採用試驗을 일컬을 만큼 朝鮮時代에는 文科에 큰 비중을 두었기에 宣祖 당시만 해도 양반에게는 과거가 人生의 登龍門이요, 榮達의 길로 삼았다. 그러므로 과거 중에서도 가장重要な 文臣採用의 生進科와 文科에의 응시는 양반(자비) 신분층의 子弟에게만 許諾된 특권이었기에, 노계도 그의 嚴親 碩이 承任郎(東班 從八品)과 承議副尉(南班 正八品)를 지낸 子孫이었지만, 일찍 落鄉한 兩班이므로 文臣採用의 과거에 응시하여 정계에 진출하기에는 不可能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薩敘가 二品 이상의 관리의 子弟에게限하고 있었기에 科舉를 通하지 않고는 더욱 출세의 길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 외에는 만약 과거를 보아 文科에 급제한다고 하더라도 사화와 당쟁을 불러 일으키는 各派閥의 對立 속에서 언제 불행을 당할지 불안해 했다. 또 政界를 지배할 수 있는 출세의 길이 흔미하였음을 미리 감지하고 王亂의 종식과 함께 宦路의 꿈을 버리고 귀향하여 自然을 즐기면서 도덕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生의 참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과거에 급제하여 得意하면 中央의 權力舞臺에서 橫行하고, 失意하면 故鄉山水에 自娛하며 窯辭와 文章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蘆溪는 당초부터 당쟁과 파벌을 일삼는 政治一線에 엿보지도 않았다. 오직 落鄉한 文人처럼 옛 聖人之學에 힘을 기울이다가 王亂이 일어나며 혼란과 민심의 離散 속에서 勤王을 부르짖고 義兵에 가담하였다. 그것은 鄉

20) 韓治勛, 韓國通史(서울, 윤유문화사, 1973) p.341.

21)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농촌경제 사회변동편－(서울, 일조각, 1970), p.180.

里에 對한 土着的 愛鄉心과 왜구의 침략에 對한 民族的 저항운동과 나라를 求하고자 하는 우국충정에서 武科에 응시하였고, 萬戶라는 벼슬로 그 직분을 亂中에 계을리 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로써 볼 때 노제가 文科 아닌 武科에 응시하여 武夫로 활약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신의 政治的 영달이 目的이 아니고 다만 우국충정 속에서 일으킨 自生的 행동의 결과라 하겠다. 그의 作品 속에서도 엿보이 듯이 그의 心情은 中央에 진출할 벼슬보다 일상 생활 속에서 師門傳教의 道義的 教訓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숨은 儒學者라 생각된다.

自然生活의 즐거움과 학문의 이치를 깨닫고자 항상 노력하였으며, 틈이 생기는대로 漢陰 李德馨을 찾아 從遊하여 龍津江 別墅村莎堤에서 <莎堤曲>과 <陋巷詞>를 지어 자기의 심경을 자연스럽고도 솔직하게 表現하였으니 <太平詞>나 <船上歎>에서 찾아 볼 수 있는 武夫 아닌 文人的 氣質로서 참다운 作家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그의 창작 태도는 주자학적 바탕 위에 도덕적 이상 실현을 추구하고 내 나라 동포에게 善德을 베풀고자 하는 清貧儒者의 眞面目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三. 陋巷詞의 現實認識

1. 清貧儒者의 道德觀

文學의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詩歌文學은 크게 二分하여 古典的側面과 浪漫的側面으로 類別하고 있는데²²⁾ 특히 時調文學에서 뚜렷이 구분 지우고 있다. 그 古典的側面이란 과거의 漢詩에서 익혀 온 바 現實의 秩序 있는 配定을 말함이요, 浪漫的側面이란 이를 파괴하고 人間性에의 복귀를 노래한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은 형태로 한국의 시가(특히 시조문학)를 他說的 형식과 自說的 형식으로 区分하여, 유교적 理念을 기본으로 언제나 中國의인 故事와 古典에 의하여 사고하고 생활하며, 尚古의인 것을 前者로 말하고, 유교적 理性이 人間의 현실적 체험을 고정화하고, 作品 자체의 圖式的인 性格을 거부하고 人間性의 복귀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현실 감각을 보여주는 것을 後者로 지칭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이 李朝 詩歌 作家들은 대개 새로운 世界觀을 창조하려는 性理學

22) 金東旭, 國文學概說(서울, 민중서관, 1961) p.69.

23) 朴詰熙, 韓國詩歌의 지속과 변화연구, 嶺南大 博士學位論文(1979) p.39, p.47.

者들로서 「詩言志」·「歌永言」·「詩三百一言而蔽之 思無邪」 등의 中國의 典禮主義的 思考方式을 그들의 歌作에 응용하여 性情의 조리 있는 배합으로 삶의 認識을 作品으로 表現하고 유교적 理念을 형상화시켰다. 蘆溪의 詩歌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 유교사상의 表現이며, 예술의 기반은 道德生活로 一貫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의 行狀에

『詩는 言志요 歌는 永言이니 사람의 善心을 感發하는 것은 歌가 가장 으뜸이라……』²⁴⁾

하였다. 이는 일찌기 退溪가 지은 陶山十二曲跋文에서 前六曲 言志와 後六曲 言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陶山十二曲은 陶山老人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지은 것은 무얼 위해선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여 죽히 말할것이 못된다. 翰林別曲과 같은 류는 文人의 입에서 나왔으나, 호걸스러움을 자랑하여 방탕하고 아울러 무례하고 거만하며 희롱하고 친압한 것으로 더우기 군자가 마땅히 중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균세에 李髓의 歌만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한림별곡 보다 좋다고는 하나 세상을 놀리는 불공스런 뜻이 있고 温柔淳厚한 실속이 적은게 애석하다. 노인이 본디 음율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악을 듣기 싫어 할 줄은 알아서 한가히 지내며 病을 고치는 여가에 무릇 성정에 감동된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 시와는 달라서 가히 읊기는 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만약 노래할 수 있도록 하자면 반드시 시속의 말로 읊어야 하는지라 대개 나와 풍속의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고로 일즉 李歌를 모방하여 도산六曲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一是 言志요 다른 一是 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朝夕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기대어 들게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며 뛰게 하고자 합이거늘 아마도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서 감발하고 온화하게 되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하게 될이 없지 않을 것이다.』²⁵⁾

라 하여 言志는 그 내용이 賞自然이고, 言學은 그 내용이 研學으로서 儒學을

24) 「詩言志 歌永言 而感發人之善心 歌爲最」(蘆溪集, 行狀編).

25)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蕪雜以穢漫戲狎, 尤非君子所宜尚, 惟近世有李髓六歌者, 世所盛傳猶爲彼善於此, 亦惜予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者感於情性者每發於詩, 然今之詩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必綴以俚俗之語, 蓋

밖아 나가는 학문 수행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이것이 비록 漢詩에 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主로 우리 가곡을 염두에 두고 비평을 행한 것 이므로 당대의 시(漢詩)가 거의 歌唱的 기능을 잃어 가고 있음에 대해서도 논하는一面을 볼 수 있다.

古代人们은 詩歌, 歌樂이라 하여 詩와 音樂을 同一物의 表裏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孔子는 제자들에게 詩를 배우도록 권장하는 가운데

「詩는 마음을 흥하지 하며 서로써 풍속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사람과 어울려 非情을 원망할 줄 알게 한다. 가까이는 어버이 섬김을 가르치고 나아가서는 암금 섬기는 바탕이 되며, 새와 짐승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²⁶⁾

라고 하여 詩와 事父君 識鳥獸草木之名까지 결부시키어 吟風詠月의 詩境에 머뭇거리는 詩人們에게는 좋은 교훈이다. 물론 詩經의 시를 두고 한 것이겠으나 그때 이미 '성정순화'라는 풍속의 관찰 등 시의 효용성과 詩教의 필요성이 친명되었음을 알거리와, 또한 이조의 詩歌에 많은 영향을 주어 효용본의 비중을 차지하게 했을 것이다.

노계도 사람의 善心을 感發하는 즉 성정을 순화시키는 것은 詩 보다 歌가 으뜸이라 했다. 이보다 앞서 퇴계는 漢語는 우리 말과 다르기 때문에 歌로 할려면 우리의 文章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스스로 춤추고 노래하게 하면(自歌而自舞蹈之) 비루한 마음을 셋어내서 감발하고 온화하게 되어(感發融通) 노래하는 者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해진다고 하였다. 이亦 곧 노계의 시가관이 先人은 물론 퇴계의 시가관과 서로 통할 수 있는 면을 볼 수 있다.

李朝社會가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詩歌뿐만 아니라 모든 文學이 그때 그때마다 文學思潮 저변에는 載道的인 문학관이 항상 깔려 있다고 생각될 때 유교적인 "理"로 설명되는 세계에서 서정시에서 보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종의 기성화된 감정 즉 관습적이고 타설적인 의미로 통해지고 있다. 노계의 <早紅柿歌>나 고산의 <五友歌> 등에서 사용되는 詩語는 개념적 언어에서 논리적 의미를 발현하는 言語로 되었기에 유교적인 想

國俗音節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而作, 為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憶而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薦蘇鄙音感發融通, 而歌者興聽者不能無交有益焉」(退溪集 陶山十二曲跋).

26) 「小者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爾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論語·陽貨九).

辨的 사고방식 속에서 生活하는 尚古의이고 타설적인 作品이라 하겠다.

蘆溪의 時調는 <早紅柿歌>를 필두로 하여 <五倫歌> 등六十首가 傳하지만 <太平詞> <莎堤曲> <陋巷詞> <船上歎> <嶺南歌> <蘆溪歌> <獨樂堂> 등七편의 歌辭作品에서 볼 때 文學의 才幹은 단가 보다 장가에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陋巷詞>는 他作品보다 蘆溪가陋巷의²⁷⁾ 現實生活을 寫實的으로 가식 없이 그렸고 清貧儒者로서 現實認識을 통한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安貧²⁸⁾ 속에서 樂道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또 「貧而樂」하는 말과 같이 노제는 가난을 예사로 여기면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의 樂을 變함 없이 즐기고자 하는信念이 엿보이기도 한다. 時代와 作家의 性向에 따라 문제마다 소 달라지겠지만同一作家의 作品들에서도 서로 다른 성향을 發見할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노제의 一連의 作品 가운데서도 心理的 갈등에 따른 表白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곧 社會的 現實과 意志의 충돌에서 오고 또 현실 자체를 현실 그대로 묘사하는 表現의 사실성을 우리는 노제의 가사 중 <陋巷詞>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鄭松江이 지은 가사작품의 기법과는 다른 文學觀을 볼 수 있다. <陋巷詞>의 제작 동기는 노제가 李漢陰相公을 죽이 놀 때相公이 王亂 후 두메살림의 어려운 형편을 물었을 때²⁹⁾ 지은 것으로 艱難한 現實生活을 잘 表現하고 있다.

어리고迂闊한 산 이니 우히 더니 업다.

吉凶禍福을 하날지 부쳐두고

陋巷 집풀 곳의 草幕을 지어 두고

風朝雨夕에 석은 딥히 설히 되야

셔흡 밤 닷흡 粥에 烟氣도 하도 할샤.

설레인 热冷에 뛴 비 쇠일 雪이로다.

生涯 이터호다 丈夫 뜻을 읊길년가.

安貧一念을 벽을 망정 품고이서

隨宜로 살려호니 날로조차 離歸호다.³⁰⁾

27) 「子曰 賢哉回也，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論語·雍也九) 「顏淵簞食瓢飲 在於陋巷」(漢書·貨殖傳).

28) 「安貧樂賤 與世無營」(後漢書·蔡邕傳).

29) 「末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論語).

30) 「公從遊 漢陰相公 相公問公，山居窮苦之狀，公乃述己懷作此曲」(蘆溪集).

31) 陋巷詞作品의 눈단 나누기는 朴成義著「松江, 蘆溪·孤山의 詩歌文學」에서 참고하였다. (서울, 玄岩社, 1975) pp. 228-234.

이상은 緒詞로서 陋巷에 사는 清貧儒者가 安貧樂道하려는 心情을 노래하고 있다.

옛부터 富貴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富貴는 사람의 人格과 才能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常例이지만 人格과 才能이 있는데도 貧賤하다면 그 貧賤은 道義의 清貧이므로 구태여 기피하지 말고³²⁾ 만족할 수 있는 安貧 속의 樂道가 진정한 儒者의 길로 보여진다. 그래서 陋巷의 궁핍한 生活의 묘사는 노계의 현실적 모습이며, 단시일 안에 회복불능한 어려운 실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孔子의 제자 顏回의 生活태도³³⁾를 견주고 염원하는 작자의 심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王亂 後의 펑박한 생활도 전쟁 통에 생긴 것이요, 짖주리고 헐벗음에 몸을 끓는다고 해서 일편단심 잊을 것인가?

② まことに 不足거든 봄이라 有餘하며
주머니 뛰어거든 瓶이라 담겨시라
貧困호 人生이 天地間의 나뿐이라.
飢寒이 切身한다 一丹心을 이질눈가
舊義忘身호야 죽어야 말녀 너겨
千囊千嚢의 줌줌이 모와 너코
兵戈五載에 敢死心을 가져이셔
履尸涉血호야 몇 百戰을 지나연고

이미 지난날의 兵戈五載에 履尸涉血하며 전쟁을 생각할 때 나라가 황폐하여 貧困상태이지만,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야 말로 충성심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선비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앞의 인용문장과 연결 지을 때 이미 많은 시간은 과거가 되었고, 陋巷의 현실은 가난으로 인하여 쓸뒤주는 비어 있지만 태연하게 天命에 貧富를 맡기고 道義生活을 찾고자 한다. 또 여기서는 用之則行하고 舍之則藏³⁴⁾하는 뜻이 복선으로 깔려 있음이 一丹心과 敢死心으로 연결 지을 수 있고, 나아가서 君王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 귀절의 「마음히 不足」함과 「봄이라

32)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不處也. 貧與賤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不去也」(論語, 里仁五).

33) 「回也, 其庶乎屢空」(論語, 先進十八).

「士志於道 而恥惡食者 未足與議也」(里仁九).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學而).

34) 「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有是夫」(述而十).

有餘' 및 '빈주머니' 와 '닫겨진 瓶'의 因果性을 대조적으로 表現한 것은 그의 短歌

「群鳳 모다신덕 의가마기 드려오니 白玉 사친곳에 둘 허아 갖다마는 두어라.
鳳凰도 飛鳥와 類여시니 뵐셔논들 엇더 허리」³⁵⁾

에서 '봉황'과 '가마귀' 및 '白玉'과 '둘'의 비교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貧富貴賤의 계층관계를 詩化하고 있다. '봉황'과 '가마귀'도 새의 종류라는 것을 통해 人間은 누구나 평등하며, 신분과 계층 간의 차별로서 '빈주머니'와 '닫겨진 瓶', 즉 없는 者와 가진 者로 區分되어 질 수 없는 人間의 평등함을 주장하고 있다. 도덕상으로 君臣과 父子는 종족인 복종관계이지만 동시에 횡적으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제기하여 혼협하고 도시적인 유형의 人間意識을 현실적으로 社會化 하고 있다.

天地間에 나 뿐 아닌 모든 사람이 鮫주리고 있는 人間의 평등의식 속에서도 대부분의 선비들은 아직도 田地와 奴婢로 同一視하는 봉건시대적 계급의식이 도사리고 있지마는 이제는 모두 鮫어 죽는 관국에 누구나 生業(農事)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耕耕稼穡으로 口腹이 차면 江湖에서 有斐君子처럼 즐기다가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 늙어 버리겠다고 한다.

6. 江湖 흘 물 · 무언지도 오리려니

口腹이 築累 허야 어지비 이져쩌다.
臆彼淇澳흔덕 緑竹도 하도 할샤
有斐君子들아 낙덕 호나 빌려스라.
蘆花길 풀 곳에 明月清風 빛이피아
님자 임순 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無心한 白鷗야 오타흐며 말라흐라
다토리 임술순 다문인가 너기로다.

위의 引用은 누항사 제六단으로 항상 강호생활을 꿈에 그리는 作者의 의도가 엿보인다. 즉 口腹이라도 채워지고 걱정 없으면 詩經의 句節에 나오는 '瞻彼淇澳'의 淇水 물가에서 緑竹이나 바라보고 '교양 있는 선비(有斐君子)들과 낚시하면서 살아 봤으면 하는 꿈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임자 없는 '風

35) 정병우 「서조사집」 (서울, 신구문화사, 1966) p. 422 원용.

‘月江山’에서 ‘明月清風’과 벗이 되어 저절로 生을 마치고 싶고, 무심한 ‘白鷗’처럼 남과 다투지 않고 살고 싶다는 作者의 心境을 피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人間과 人間의 관계보다 人間과 自然의 거리가 훨씬 가깝고 훨씬 親和의인 뜻이 짚게 깔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 賢者避世하는 江湖生活이 아니고 오직 그런 꿈을 <樂山樂水>로 지니고서 언젠가는 薩岩의 <效鶴歌>에 나오는 歸去來詩, 孤山의 <어부사시사>의江湖生活, 퇴계의 <도산十二曲>의 現世逃避의 生活처럼 悠悠自適한 物外間人の 生活을 그리워 하고 있다. 그야말로 功名欲을 버리고 隱世聖賢之道를 닦으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물과 달, 산을 보고 人生과 自然이 서로 合致될 수 있는 기쁨의 경지를 느끼고자 했을 것이다. 또 그에 있어서 自然과 人間의 合致는 많은 人間的인 수난과 현세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일어진 一種의 諦念일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노계는 이 체념은 자신이 봉착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즉 壬亂과 胡亂을 직접 겪고 대결한 가운데 일어진 삶의 차세로 표현했을 것이다.

⑦ 無狀호 이몸에 무슨 志趣 이스리 마는

두세 이령 밧논를 다 무거 더더고
이시면 粥이오 업시면 굽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는 遠하 부러 말렸노라.
너 貧賤 슬히 너겨 손을 해다 물너가며
남의 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人間어늬 일이 命 밧기 삼겨시라.

(방점은 필자)

남의 富貴도 부러워함이 없이 人間萬事를 運命에 맡겨 두고 살아 보자는 하나의 운명론자처럼 李朝의 전형적인 선비사상을 表出하고 있다. 壬亂 後의 비참한 現實을肯定的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높은 理想을 지향하는 태도에 가치 있다고 하겠다. 蘆溪의 이런 安貧樂道하고자 하는 태도가 (위의 방점 부분) 英祖 때 金天澤의 시조³⁷⁾에서 그대로 계승되어 나타나고 있다. 노계

36) 申東旭, 한국서정시에 있어서, 현실의 이해, 민족문화연구 vol. 10(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6) p. 152.

37) 그의 시조를 소개하면

「安貧을 싫이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富貴를 부려하여 손을 치다 나아오라
아마도 貧而無怨이 거 옳은가 하노라」(방점, 필자)

의 이러한 태도는 오로지 修身治己로서 一身의 富貴를 바라지도 않고, 또 貧賤을 원망하지 않은 채 「存天理·遏人欲」하려는 性理學의 清貧儒者의 태도로서 存養省察과 居敬窮理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麗末에 받아 들여진 性理學이 李祖에 들면서 한결 深度가 加하여져 16C인 蘆溪의 時代는 그 思想이 遍滿되고 당시 사회 一般의 思潮였으므로 그 思想에 영향이 되었을 것이다.³³⁾ 蘆溪가 지은 詩歌의 끊임에서 볼 때 그가 老後에 專心으로 探索하고 擁得한 學問이 道學으로써, 곧 性理를 벗어 나질 못했다. 그래서 그는 孝, 恕, 忠, 信의 規義를 강조하고 先賢들의 訓教를 垂範하는 데 친졌다.

⑧ 貧而無怨을 어렵다 旱魃마는

나生涯 이려호더 설은뜻은 업노왜타.
簞食瓢飲을 이도 足히 너기로다.
平生 旱魃이 溫飽애는 없노왜타.
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을삼아
和兄弟 信朋友 의다호리 뉘이시리
그 뜻과 남온 일이야 삼진덕로 살렸노라.

一平生 동안 溫飽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항상 「貧而無怨難」³⁹⁾한 뜻을 가지고 安貧樂道하겠다는 生活態度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太平天下에 가서는 <立身揚名 以顯父母 孝之終>라 하듯이 벼슬 얻어 忠을 실천하고 孝를 최고의 境地로 삼아 平生의 行道로서 철저한 도학자적인 생활관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서 兄弟和睦하고 朋友의 信義가 生活을 為主로 함으로써 人間世上의 최우선하는 三綱五倫⁴⁰⁾을 밝혀 道德律의 實踐具現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이 蘆溪는 三綱五倫의 儒教思想을 몸소 실천하려는 철저한 行動의 道學者로서 유교적 理性이란 결대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가장 충실히 道를 行하고자 하는信念이 엿보인다. 이러한 道를 行한 뒤 다른 일들은 江湖에서 取樂하여 世事를 잊고 유유자적하면서一生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38) 李相寶, 蘆溪詩歌研究, (서울, 二友堂出版社, 1978) p.41.

39) 「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論語, 懲問十一).

40) 蘆溪는 그의 五倫歌 中에서

「天地間萬物中에 사물이 最貴ぞ니
最貴한 바는 五倫이 아니온가
사물이 五倫을 모르면 不違禽獸 흐리다」라고 읊고 있다.

이런 뜻은 특히 그가 만년에 지은 <蘆溪歌>에서 역역히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蘆溪歌辭는 主로 性理學을 바탕으로 한 社會倫理의 具現으로 王道政治와 忠孝思想을 근간으로 하면서 人間의 기본적 관계를 말하고 참다운 人間主義의 精神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는 끝에 가서 陋巷의 어려움 속에서 江湖生活에 대한 동경의心理를 개진하고, 風流生活 아닌 人間關係에 대한 진실성이 그의 作品 속에 一貫되어 있다. 노제의 心情에는 <가난한 生活像>도 하나의 現實的 고민으로 보여지지만, 孔孟의 學과 顏回의 뜻을 따라 극복하고 있으며, 오히려 五倫의 忠孝, 和兄弟, 信朋友를 일삼아 後生을 教化시켜 보자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그는 世上物欲을 떠나.

「蘆花 집온곳에 明月清風 벗이되야 님저업 순 風月江山」을 自己 所有物로 삼고 自然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고자 하는 超俗的 詩人의 면모를 보여준다.

퇴계와 같은 근엄한 道學者的인 기풍을 가지고 作品을 창작하였지만, 여딘가 모르게 아직 미진하고 性理學의 심오한 깊이가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寒微한 가문에 남들처럼 일찍부터 학문의 수련도 받지 못하고 만년에 와서 名儒 퇴체와 회재 선생을 추모하여 書院을 찾아 보고, 당시 성리학자 李德馨 鄭逮, 張顯光 등을 찾아서 교유한 가운데 얻었다 하는 것은 올바른 성리학의 私師 없이 독학한 것으로 오직 修身의 道理 곧 人倫을 인식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⁴¹⁾ 그러므로 그의 시조나 歌詞文學 作品들은 美的 형상화 보다는 五倫을 강조하는 立議論的인 입장에서 창작하게 되었고 截道的인 文學으로 그치고 말았다.

2. 陋巷의 代農夫吟

<陋巷詞>에 있어서의 代農夫吟이란 용어는 歌辭를 通하여 反映한 農村 實情과 農民의 生活像을 代辦한다는 말이다. 蘆溪의 <陋巷詞>와 함께 漢詩 <耕田歌十首>를 간혹 農村文學의 先驅的인 作品으로서 王亂 以後의 農村 生活의 궁핍화 현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農村을 題材로 한 詩歌과 하고 있다.

詩歌에 있어서 素材선택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곧 작가의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具體的인 체험에서 우러 나온다. 이 具體的인 현실인식이란 보이

41) 崔雄: 한국 古典詩論으로 본 蘆溪詩歌 冠嶽語文研究 vol. 2, (서울大 국어국문과 1977) p. 158-159.

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포함한 보이는 세계를 직접 체험하여 깨닫고 作者自身이 심화시켜 형상화하였다.

農業은 朝鮮에 있어서 國家의 경제적 바탕이었고, 그리고 民衆의 儒教의指導理念이 되었다. 그래서 朝鮮王朝는 건국 이후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강력한 농업정책의 구현을 爲하여 노력하였고, 朝鮮社會의 기본적 지배관계는 토지소유 관계에 집중적으로 表現되어 있다.

朝鮮朝의 兩班은 本質의 으로 地主였으며 양반의 토지는 地主와 佃戶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이 필요하였고, 이 권력을 이용하여 농민을 신분적으로 지배하였다. 李朝中期 政權을 휘士林들 속에서 分裂이 생기어 싸우게 되면서 黨爭을 일으키고 이 다팽을 뒤에서 뒷받침해 준 士林의 경제적 士臺는 農村地方의 農莊이었다. 士林들의 生活基盤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地方의 農莊과 奴婢들이다. 그들의 최고 理想인 中央進出이나 벼슬에서 물려나게 되면 완전한 도피처로 삼는 곳이 또한 이들의 農莊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兩班이 국가관료가 될 수 없었기에 ① 지주이면서 관료인 경우, ② 지주이면서도 관료가 아닌 경우, ③ 관료이면서도 지주가 아닌 경우, 끝으로 ④ 지주도 관료도 아닌 경우 등으로 4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⁴²⁾

첫번째의 경우는 양반 중에서도 家世와 門地가 좋은 大家世族들로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土地와 노비가 풍부한 양반의 최고층이다.

두번째의 경우는 地方에서의 중소 토지 소유자인 土姓土族들로서 주로 留鄉所, 鄉約, 鄉廳 등 지주 연합체를 만든 지방 중소 지주층이다.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에 응시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려는 관료후보들이다.

세번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서 개인적으로 관료나 지주가 아닐 수 있으나 그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요 문벌과 族閥을 배경으로 한 族人이다. 끝으로 地主도 관료도 아닌 경우는 身分은 양반이지만 오래도록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여 家勢가 빈약하며, 점차 良人으로 전락해 가는 의식만으로의 兩班, 즉 '몰락양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부류들은 봉건신분제가 급격히 붕괴됨에 따라 朝鮮 후기에 가서는 殘班이라 하여 하급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陋巷詞에 나타난 蘆溪는 지주도 관료도 아닌 물

42) 李成茂, 양반관료 국가의 사회구조, 한국사 vol. 10, (남구당, 1973) p. 566.

락양반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家內 노동력(奴婢)을 이용하여 自耕해야 하는 딱한 사정을 作品을 通하여 볼 수 있다.

[3] 一身이 餘暇잇사 一家를 도라보라

—奴長鬢는 奴主分을 이겼거든
告余春及을 어느사이 성각호리
耕當問奴들 늘드려 물론는고
躬耕稼穡이 너 分인 줄 알리로다.
莘野耕叟와 壴上耕翁을
廳타 호리 업것마는
아모려 갈고천돌 어느 쇼로 갈로손고.

爲國忠臣으로서 國亂을 당하여 전쟁터에서 東奔西走한 탓으로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하여 農土는 폐폐할 대로 황폐하여 버려져 있고, 奴婢도 主人을 알아 주지 않아 몸소 밭을 갈게 되고, 밭갈 소조차 없어 恨歎하는 心情을 읊었다.

未曾有의 외적의 침입으로 당시 국가의 유일한 재정수단이요, 민중의 生存수단인 농업 경작지의 피해만도 亂前에는 151만ha였는데, 亂後 3年뒤에는 30만ha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되었다. 이같은 농경지의 감소로 국가재정이 궁핍하게 되자 지배층의 정권욕은 더욱 불타게 하고 亂後의 전쟁은 점점 치열하면서 국민의 生活苦는 더욱 압박을 가져 왔다. 그리고 奴婢는 土地와 함께 양반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으며, 家內 奴婢는 主家에 종속되어 양반의 토지를 경작하여야 했다. 위의 作品에서 본 바와 같이 전쟁 후 집에 오니 奴婢들은主人이 없는 사이에 外居奴婢⁽⁴³⁾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蘆溪를 도와 줄 奴婢도 없어지고 農牛마저 없으니 몸소 躬耕稼穡을 아니 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잘사는 이웃 良人에게 가서 소를 빌리러 가는 대목으로

43) 奴婢에는 양반主家에 종속되어 양반의 土地를 경작해 주는 家內奴婢가 있는 반면, 獨立戶를 이루어 자기의 經理, 자기의 책임아래 양반의 土地를 경작해 주는 外居奴婢가 있어 佃戶라 불린다. 이 外居奴婢의 佃戶들은 下層良人으로서 身良役賤이며 경제적으로 신분적 예속관계가 없이 人格的自由를 가진 良人과 큰 차이가 없었다. 후기에 내려옴에 따라 양반은 地主로서 良賤佃戶와의 사이에 併作半收를 행하고 국가에 대하여 田稅와 貢物을 바쳐야 했다. 이것은 歷史的으로 良賤農民의 접근현상이라 한다. (李成茂: 양반관료 국가의 사회구조, 한국사 10 탐구당 p. 567)

④ 早旣太甚호야 時節이 다느즌제

西晦는 혼돈에 잠든진 날비례
道上無源水를 반만싼 덕하두고
소홍적 둘마하고 업설이 혼눈말삼
親切호라 너진집의 달입순 黃昏의 혀위혀위 다라가서
구디다둔 門밖의 어득히 혼자서서
큰기춤 아함이를 良久토록 혼온후에
어화 괴 뉘신고 廉恥업 산 너옴노라.
初更도 거원터 거있지 와겨신고
年年에 어려호기 荷且티줄 알전만는
쇼업순 窫家애 해열만하 왓삽노라.
공흐너나 감시나 주임죽도 혼다마는
다만 어제반의 거넨집 저사람이
목불근 수기媚을 玉脂泣개 수어니고
간이근 三亥酒을 醉토록 衢호거든
이라한 恩惠을 어이아니 감흘린고
來日로 주마하고 큰 言約호야거든
失約이 未便호니 사셜이어려웨라.
實爲그려 혼면 혐마어이 할고
현민덕 수기스고 측업순 짚신에 실패실패 물리오니
風彩저근 形容에 이즈칠 웬이로다.

작가가 직접 농부가 되어 서술하는 <亂世詞>의 중요한 모티브이다.

農事는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失時하지 않으려고 農牛를 빌리려 갔다가 빌리지 못하고 돌아오고 달았다. 이는 農民의 心情으로서는 失農하는 비참한 상황이다. 가난을 면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려 하니 現實은 그렇지 않았다. 그야말로 순박한 농부의 모습이지만 현실의 갈등 속에서 암담하기 그지 없다.

을해가 처음이 아니고 「年年에 어려호기 荷且호 줄 알거마는 쇼업순 窫家애 해열만하 왓삽노라」하고 소를 또 빌리려고 했지만 이미 先約이 되어 있어 「현 민덕 수기스고 측업순 짚신에 실패실패…」 물려나오는 광경은 作家의 상상적 이미지 이거나 판념의 유희가 아닌 비참한 농가생활의 현실의 실체를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 준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농촌 농민의 실정은 매우 침착한 형편이었다. 王亂과 兩호란으로 因하여 폐墟할 대로 농

토는 벼려져 있고 그나마 농사의 주역인 農牛조차 빌리기 어려우니 어찌
가난한 선비 농부에게까지 돌아 오겠는가. 이러한 구차하고 어려운 農村
의 生活이 이터 하거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모순 또한 허다 할 것
이다.

위의 句節은 朴仁老가 당시에 느낀 「陋巷」의 생생한 기록이요 현실인식으
로서 代農夫吟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킨 작품이라는 데에 더욱 의미가 깊
다. 힘껏 일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자기의 생활을 하려는 순박한 농부가
되고자 하였지만, 현실의 고민은 더욱 심각하여 王亂 후 당시 사회적인 이면
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어 蔑侮를 받고 돌아 와 각박한 世態人心을 피부로
느끼고 한탄하고 있다.

⑤ 蝸室에 드러 간돌 잡이와사 누어시다.

北牕을 비겨 암자 서비를 기다리니
無情호 戴勝은 이너恨을 도우느다.
終朝惆悵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줄기는 農歌도 興업서 들리느다.
世情 모든 한숨은 그칠줄을 모른느다.
아ռ온 저소비는 벗보님도 邀呼세고
가시엉귄 목은 밧도 容易캐 갈련마는
虛堂半壁에 슬퇴입시 걸려고야.
春耕도 거의마다 후리쳐 더더 두쟈.

소를 빌리지 못하여 「가시엉귄 목은 밧도」 갈지 못하고 世上人情에 한숨
만 쉬는 작가의 갈등에 찬 괴로운 심경을 그렸다. 남들이 부르는 農歌도 흥
이 없고 잡도 오지 않는데 뼈죽새마저 마음의 恨을 더 깊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春耕에 필요한 「벗보님」도 壁에 걸려 있으나 소가
없어 사용치 못하고 쓸데 없이 있으니 더욱 마음 아프고 農事(봄갈이)도 때
를 놓쳐 포기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王亂 이후에 우리 땅을 할
퀴고 간 왜적의 깊은 상처로서 이것이 현실의 痘폐와 恨이 되어 밤이 지새
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해아릴 수 있다. 蘆
溪의 작품 세계가 이렇게 현실을 파고 들어 사실적으로 (대화와 지문을 통
해) 그 어두운 면을 마음 아파하고 恨하는 데는 당시 양반계층으로서 남다
른 면을 볼 수 있다.

그는 寒微한 家門 출신이다. 門閥勢家의 子弟들과 같이 유명한 스승 밑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다만 修身의 道理, 곧 人倫을 인식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그의 交遊人物도 鄉里巨族에 속하는 義兵將인 鄭世雅에게 武人精神을 영향받아 戰亂에 참가 활약하였고, 그 후 政界의 李德馨, 性理學者 鄭述, 張顯光 등에게 忠·孝·誠·敬을 깊게 영향 받아 藏道的 文學觀의 立議論의 詩歌趣向⁴⁴⁾을 갖게 되었다. 그는 前代의 귀족 문인들과는 달리 <陋巷詞>를 비롯한 <영남가>와 漢詩 <耕田歌十首>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민의 生活像과 농촌사회 현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王亂 前期에 권력자의 담쟁이 극심하여 그는 文臣으로 출발하여 권력 투쟁에 뛰어 들기 보다 오직 우국충정에서 武夫로서 활약하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 와 사회현실에 대한 실의와 좌절을 감내하면서 오직 일반 국민의 참담한 생활을 보다 못해 농민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왜냐하면 농민의 농사일은 국가의 기반이며 민족역량의 원천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耕田歌中에서도 노계는 백성의 학일은 農事が 근본이니 놀아 가면서 누가 밭을 갈아 주겠는가⁴⁵⁾라고 하였으며, 또 호사스런 생활을 할수록 벼슬길이 밟갈이(農事) 보다 좋다고 하지만 농사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했다.⁴⁶⁾ 그것은 곧 벼슬은 언제나 영광과 치욕이 있을 수 있으나, 農事일은 그렇지 않아 마음 놓고 열심히 노력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이다.

人間의 貧富는 물론 生死까지도 폭식에 달려 있는데 農業이 天下에 근본이니 어찌 벼슬에 비하겠는가. 그래서 노계 자신도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현실을 실질적으로 사고한 결과 항상 모든 것이 현실주의적인 자각에서 藏道的 文學觀을 꿰 보려고 노력하였다.

蘆溪가 農村 農民을 作品의 素材로 삼는 뜻은 시대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양식의 產物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지식은 항상 農民生活을 대변하고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정신의 논리로 바뀌고 직관과 통찰력으로 현실을 인식해 하는 예리한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

農業이 나라의 근본이기에 蘆溪는 당시 농촌사회의 모순과 비참한 실생활

44) 崔雄, 한국 고전 시론으로 본 노계시가. 관악어문연구 vol. 2. (서울大 국어국문과 1977) p. 158.

45) 生民事業木於耕 遊乎何人獨不耕

戴勝亦知農務急 衆來飛去勸民耕 (蘆溪集 耕田歌三)

46) 莫言千祿勝於耕 千祿焉能及此耕

宦路有時榮與辱 無榮無辱莫如耕 (莘耕田歌五)

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그 본질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설파함으로써 농민의 대변자적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四. 陋巷詞와 戴道的 文學觀

李朝時代 당쟁의 틈바구니에서 형성된 士林派 性理學者들이 文學의 意義는 궁극적으로 도덕의 목표에 두었고, 나아가 江湖歌道를 형성하여 自然美를 발견하고⁴⁷⁾ 美意識의 특징을 규정하여 餘白의 美⁴⁸⁾를 느끼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李朝 性理學者들의 詩는 性情을 表現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性情의 本質面과 心性의 陶冶(効用面)로 나누었다.⁴⁹⁾ 이 性情과 心性은 특히 詩에 있어서 感情의 粉飾으로 造作되고 文字의 糟粕을 摥拾하는 등 文字의 技巧로 因하여 잃어 버려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正道를 벗어 나게 하였다. 이에 反하여 性理學者들은 道德的 善을 위해서 詩가 존재하고 美的 價値가 倫理的 價値에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蘆溪도 이러한 고종판념에 영향을 받아 그의 詩歌에 對한 才質, 또한 忠孝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윤리관을 驅歌하여 戴道的 文學觀을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시조 〈五倫歌〉二十五首를 비롯하여 〈莎提曲〉〈太平詞〉〈陋巷詞〉〈嶺南歌〉〈船上歎〉〈蘆溪歌〉등에서 人倫道德心을 驅歌하는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계의 詩歌에서도 前代의 性理學者들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판에 영향을 받아 安貧樂道하는 道德的 판념이 美意識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의 歌辭作品「陋巷詞」를 中心하여 美意識의 기초가 된 文學의 戴道的인 面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王亂 後의 각박한 現實과 거리를 두지 않고 깊숙히 파고 들면서도事物에 접착함이 없이 倫理를 바탕으로 도덕을 강조하는 戴道의 입장은 취하고 있다.

蘆溪는 맨 나중에 가서 소요자적하는 江湖生活을 願하였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현실의 社會的情況을 떠나서 「人間을 돌아 보니 머도록 더욱 토타」와

47) 趙潤濟, 韓國文學史, (서울 동국문화사, 1965) pp. 130-141.

48) 崔珍源, 강호가도의 연구, pp. 66-83.

49) 林熒澤, 16世紀 士林派의 文藝意識, 한국학논집 3,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p. 170.

같은 고산 윤선도의 物外閑人하는 생각과는 다르다. 王亂 후 고향에 돌아 온 노계는 「陋巷김흔 곳의 草幕을 지어 두고 風雨朝夕에 석는 딥히 섭히되어야 서흡 밥 닷흡 粥에 煙氣도 하도 할샤 설레인 熟冷에 뛴 비 속일 문이로다」와 같이 亂後의 비참한 生活상을 깊이 인식하면서 어떤 고상한 吞趣로 自然을 감상하기 보다 뒤로 미루어 두고 우선 個體의 個性에 관심을 두고 人倫에 대한 議論을 세워야만 했다.

陋巷의 생활 속에서도 몸소 農事를 지으려고 소를 빌리려 갔다가 良人(?)에게 창피만 당한 끝이 되었다. 결국 이익추구로 각박해진 현실의 世態를 피부로 느꼈으니 먼저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人倫을 바로 잡고자 시즈, 가사, 한시에 이르기까지 忠, 孝, 誠, 敬을 美的 형상화 보다는 載道的인 文學觀의 意境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 前期의 性理學者들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노계 자신이 현실에 뛰어 들어 몸소 체험하였다. 漢詩 〈耕田歌十首〉를 지어 聖賢들의 행적을例로 들면서 勸農하고자 했고, 實際的인 효과를 거두려는 意境에서 노계의 文學價值를 높이 인정할 수 있다.

둘째, 각박한 世態의 現實이지만 人欲을 버리고 聖賢之道를 따르고 그 遺風을 흡모하는(性理學者들의 共通된 생각이지만) 美意識을 蘆溪의 詩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만이나 같고 열심히 농사지어 살아 보려고 農牛를 빌리려 가서 창피만 당하고 돌아 와 「蝎室에 드러간들 짐이 와사 누어시라. 北牕을 비겨안자 서비를 기나리니 無憚한 戴勝은 이 낙 恨을 도우는다」하고 世上實情을 잘 모르는 좌한 선비처럼 한숨만 쉬고 있다가 끝내는 春耕이 끝나 버려 밭갈이를 팽개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人慾을 가지지 않고 「蘆花 김풀 곳에 明月清風 벗이 되야 님자 업손 風月江山에 절로 절로 늘그리라.」하면서 聖賢之道를 깨치고 形氣에 좌우되는 世俗의 욕망을 버리고 맑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貧富貴賤은 처음부터 運命에 달렸으니 스스로 安貧樂道하며 順天者的生涯를 누리고자 하였으며, 또 살아있는 동안 「忠孝를 일삼고 和兄弟 信朋友하겠다」는 적극적인 生活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위에서 논한 두 가지 노계文學의 載道的인 특징은 性理道德의 價值의 優位에서 美意識의 土臺가 되었으며, 이러한 美的 가치는 性理道德의 價值를 보다 높은 次元에서 具現하고자 하였다. 人間의 現實을 떠난 超脫한 高踏의

경지⁵⁰⁾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現實을 인식하는 입장에서 聖賢之道를 따르고 실천해 보고자 遺風을 흡모하는 古典的 美意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은 가사보다도 시조나 漢詩에서 驅使한 用事는 평이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판용화된 故事 典例를 드는 것이 특징이다. 孝를 강조할 때 陸續 王祥 孟宗 老來子 曾子의 故事, 安貧樂道에서는 論語의 典例, 勸農에서는 舜 임금과 伊尹의 故事가 그 좋은例가 될 것이다. 이러한 故事나 典例는 直敘的이면서 설명적인 表現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作家의 내면적인 체험의 모호성을 방지하고 보다 구체적이며 作品의 意境을 的實하게 照應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五. 맷 는 말

지금까지 살펴 본 <누항사>에서 노체의 시가세계 전반을 조괄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노체의 陋巷生活에서 現實認識의 폭은 王亂이라는 시대 현실의 여러 국면을 個人的 體驗으로 볼 때 사실적인 표현의 느낌은 분명하지만 清貧儒者의 길—安貧樂道一을 向하는 과정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여 그의 입장과 처지를 완전히 뛰어 넘지는 못하고 있다.

蘆溪는 元來 山林處士가 아니다. 그의 漢詩 <安分吟> <耕田歌>에서 보는 것처럼 고향에서 奴婢와 田地를 가지고 몸소 農事일을 하는 清貧儒者와 聖賢之道를 흡모 송상하는 道德主義者로서의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다.

作品의 現實은 作家의 마음 속에 세워지는 하나의 이상으로써 作品에 나타나는 모체로서의 현실을 말하고, 또 하나는 어떤 중간물을 通해서 바깥세계에 나타나는 本來의 母體와 짹을 이루어 나타나는 作品으로서의 두 가지 현실을 볼 수 있다. <누항사>作品의 모체가 되는 王亂이라는 사회적인 생활의 참상을 作品以前의 一次的 현실이라 한다면 성공적인 作品으로 나타난 즉 도덕적으로 제도해야 할 사회적 현실을 二次的 현실로 나눌 수 있다.

一次的인 사회생활의 비참한 현실은 한꺼번에 생기지만 二次的인 作品上의 도덕적인 現實은 작가가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여 성공된 作品으로 남는다.

50) 退溪의 경우는 「淸新灑落」이라 하여 人慾을 씻고 清澄한 정신을 찾고자 했다. 그리하여 근본적으로 대립과 갈등보다는 世界의 질서와 平靜을 추구하는 面에서 蘆溪가 영향을 입었다고 하겠으나 人間의 現實을 떠난 超脫한 高踏均인 美의 경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현실주의를 외면하는 면에서는 다르다고 본다.

결국 노계는 王亂을 通한 武夫生活로 출발하였지만, 귀향 후에는 양반 출신 이면서도 良民으로 어려운 농사일을 通하여 儒者로서의 가는 길을 택하기 까지 많은 사회적 갈등과 번민을 느끼게 한다. 항상 清貧儒者로서 安貧 속에서 樂道를 염원하고 강호생활을 즐기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3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로 王亂을 通한 戰亂과 가난을 현실생활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 바탕 위에서 인식하고陋巷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밝히고 사회윤리성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外面的으로 王亂 후의 비참한 농촌의 가난한 현실은 실제로 安貧 樂道하기까지는 많은 번민과 갈등을 느끼게 하였으며, 内面的으로 깊은 性理學의研究를 갈망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다만 聖賢之道를 흡모하고 실천의 길을 항상 염원만 하였을 뿐이다.

세째로 이퇴계, 이현보, 윤선도 등의 作家들은 현실 속의 隱者的江湖生活을 作品을 通하여 즐기고 理想論을 꿔 보았지만, 노계는 끝까지 현실 속에서 호흡하며, 清貧儒者가 그리는江湖生活을 꿈으로만 그리다가 만년의 作品 「蘆溪歌」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항상 현실을 認識하는 자세에서 전전한 사회 윤리도덕을 추구하였다.

이같이 〈陋巷詞〉는 이상론을 편 作品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 속이지만 와세의 침략에 의한 농촌사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고, 농민을 의식한 대변적인 文學作品이다. 이러한 성과는 곧 17C에 발생한 실학사상과 연관되어 볼 때 새로운 시작과 지평을 열어 주었다.

노계 이후의 실학시대의 본격적인 현실에 입각한 文學作品들과 어떻게 접맥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각 시대의 현실을 인식한 농촌소재의 시가들은 어떻게 연관되어 질 것인지 그 문제들은 別稿로 미룬다.